

종교·복지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온정의 손길 줄이어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었다”

종교 칼럼



윤빈호

大同세계를 꿈꾸며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8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고인.' 그들은 1975년 군사 독재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희생양이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많을까? 정치(政治)라는 한자어를 분석해보면 정사(政)와 다스릴 치(治)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사(政)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변한 바를 정(正)과 막대기를 뜻 순 모양이 변한 칠(七)이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 막대기로 정복해서 합으로 다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단어는 무력을 혹은 힘으로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나 봅니다. 서양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국(神國)'에서 세속세계는 한편으로는 신이 원하는 시간적인 공권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신적(反神)인 모습을 드러내는 악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 국가의 양면성을 잘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정치(政治)라는 이름으로 국가들이 행한 많은 잘못들이 있었고, 또한 그 앞에서 희생당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의 울부짖음이 이번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로 잠시나마 진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치(政治)란 어떠한 법인가? 저의 생각으로는 정치란? 대동세계를 표방했으면 합니다. 예기(禮記) 예문 편에서 대동세계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큰 도(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경해진다. 현명한 사람과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 쓰면 신의가 돈독해지고 화목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만 어머니로 모시거나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남의 어머니나 자식도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된다. 노인도 인양하게 예성을 보낼 수 있게 되고, (-) 의지할 데 없거나 병든 사람들도 모두 부양을 받게 된다. (-) 그러므로 나쁜 죄는 생기지 않고 도덕에도 생겨나지 않아서 대문을 닫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정지도 이런 대동세계를 표방하여 늙대와 새끼 양이 함께 살기, 암소와 꿀이 나란히 꿀을 뜰으며 찢어 먹던 아이가 살모사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하느님의 평화의 왕국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천주교 곡성본당 신부)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목표금액 13억원. 매일 12원씩 나누기 쉽다. 보전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매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각종 사건·사고는 일상에 지친 이들의 어깨를 더 처지게 한다. 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는 추운 겨울 삭막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다. 광주·전남 모금액 57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이 지난달 31일로 막을 내렸다. 62일 동안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목표치를 훨씬 초과, '사랑의 체감온도'를 100도 이상 달랐다. 올해 광주·전남의 모금 현황과 미담 사례를 알아본다. ◇모금 현황=광주의 경우 지난해 31

일 현재 14억7천762원이 모금액 목표인 13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언론사를 통해 집계된 모금액이 합산되면 전체 모금액의 액수가 조금 더 올라갈 전망이다.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15억2천만원보다 적지만 폭설에 따른 특별 성금을 제외한다면 올해 성금이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남은 지난해 29일 목표액 40억원보다 많은 42억6천676만원이 모금됐다. 지난해 51억2천300만원에 비해 10억원이 적은 액수지만 지난해의 경우 폭설로 인해 10억원 가량 모금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전남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0억원, 광주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억원으로 각각 지역 내 가장 많은 성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미담 사례=광주의 개인 최고 기부자는 탤런트 문근영이었다. 지난해 12월 CF 출연으로 음원 수익금 2천여만원을 전액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쾌척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문근영의 어머니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현금과 상품권 5천500여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문근영과 그의 어머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하는 행복지킴이 19호와 39호로 나란히 지정돼기도 했다. '고사리손' 저금통 기부 루시어김치 김은숙 대표는 2006광주 감치대축제에서 받은 삼금 15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광주 농아인협회는 "지역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30이라는 의미"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30

만원을 보내왔다. 전남에서는 '얼굴없는 천사'들이 선행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진행된 고속도로 틀게이트 모금 운동 결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에서 익명의 40대 남성이 16년 넘게 저금통에 모아온 10원짜리 6만180원을 기부했다. 또 목포요금소와 광주요금소에서 각각 9장, 89장의 현행증서가 발견돼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여수시 문수동 고려어린이집과 목포시 용해동 신나는어린이집 원아들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통째로 기부했으며 한국소리팀 나주공작 직원들은 매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 기부로 약속하기도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눔의 정신' 실천 박흥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장. "어려운 이웃과 마음 나누니 훈훈". "기부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더라도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흥석(6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장은 지난해 31일 62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에 대해 "전국에서도 가장 못사는 전남이지만 매년 목표액을 달성하는 모습에서 우리 지역이 아직은 훈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도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이웃들

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한 것이다. 치솔, 치약 등이 포함된 3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 6천700여개는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박 회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73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기사를 통해 심장병 어린이 환자의 딱한 사연을 접하고 50만원을 기탁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면서 기부의 참맛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우

한 환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또 사회복지 시설에도 생필품을 기부하는 등 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금까지 어림잡아 약 52억원 상당의 기부를 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기부왕' 수준이다. 박 회장은 "나만 우선시 하기보다 가족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처음엔 기부 행위를 따듯하지 않아하던 아내도 지금은 적극 후원자가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 현역약국사거리. 12월 12일. 1관 그늘목소리, 2관 최강로맨스, 3관 마피도2, 4관 허브, 5관 이포칼리토, 6관 사랑해 파리, 7관 클릭, 8관 9관 최강로맨스.

최강로맨스. 사랑이 어디에도 힘들단 말인가? 최강로맨스.

엔터시네마. 주창장이 편한 극장. 1관 최강로맨스, 2관 허브, 3관 마피도2, 4관 로켓타인, 5관 그늘목소리, 6관 신나는 동물농장, 7관 활주화.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최강로맨스, 2관 로봇타인, 3관 활주화, 4관 이포칼리토, 5관 천년어우비, 6관 미녀는 괴로워, 7관 그늘목소리, 8관 클릭, 9관 마피도2, 10관 그늘목소리.

에라곤. 에라곤. 에라곤.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식당, 입식, 횡집, 레스토랑, 고전문점, 1층 50평 임대, 1층 신축건물.

금보부동산컨설팅. (02)261-8949. 신남매매, 건물매매, 건물임대, 주유소매매, 개스충전소매매.

인애공인중개사. 011-642-0391. 횡집건물매매, 고금횡집하실분형, 대98평 연건평 388평, 6층건물 3층4층5층6층 임대인로, 1층, 2층 고금횡집 130평, 424석(연회석 원비),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상무지구를 주목하라, 행정도시, 금융도시, 공공기관 집중,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 횡집임대, 고금횡집하실분형, 횡집으로 성공하실분, 1층 2층 130평 택지 42석,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임대내용은 횡집 보고 상담.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26억. 대지 180 연건평 840. 보4억5천 용9억 월300만. 청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상업용건물, 상무지구, 청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상업용건물, 상무지구.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급히 구합니다, 급히 판니다. 현대공인중개사.

법원경매. 222-8446. 아파트, 숙박시설, 주택, 공터, 다세대(원룸), 근린시설, 기타. 법원경매.

법원경매. 222-8446. 아파트, 숙박시설, 주택, 공터, 다세대(원룸), 근린시설, 기타. 법원경매.